

교수·조교 상호존중 필요한 때

전문가 칼럼

김중백
사회학 교수



최근 고용노동청이 동국대 대학원생 총학생회의 손을 들어준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 준다. 동국대 대학원생 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에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 본부를 고발한 건이다. 필자도 경험한 대학원생은 석사 혹은 박사라는 학위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학문적,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는 신분을 뜻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생은 소수에 불과하며 다수의 대학원생들은 경제 부담을 덜고 학과의 필요에 의해 조교생활을 선택한다. 이번 고발사건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대학원생의 노동권 관련 분쟁을 양지로 가져 나왔다는 점에서 학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학술 후속세대의 인권 문제를 개선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대학원생 노동관련 분쟁, 학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학교와 교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조교가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고 학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면 소송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사건은 대학원생 조교가 겪는 불합리한 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학부생에 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적으며 학위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원생의 소리 없는 외침이 4대보험과 퇴직금을 통해 분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 역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의 학문적, 개인적 삶이 지배되는 현실



조교의 역할과 책임의 바른 규정과 생활 및 연구 여건의 안정이 시급하다.

을 보여준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란 책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듯, 일부 교수들은 대학원생의 노동과 시간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으며 조교제도가 이렇게 잘못된 사제관계를 유지시키는 핵심 고리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학원생의 조교업무를 일반적인 노동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타당하지는 않다. 조교업무는 일반적인 노동 이외에도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내는 역할도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과 교육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 돈 문제는 이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 학교에서 대학원생에게 조교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측면이 크다.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명의 대학원 조교가 1년 동안 받는 전액장학금을 더하면 대략 비정규직 직원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행정 효율성만 따지면 조교 2명보다는 직원 1명이 더 유리하며 예산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교제도는 학문을 하려는 젊은 인재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학에 존재한다. 그런데 조교들이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교 생활이 오히려 학업에 장애가 된다면 이는 조교업

무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조교들은 업무 과정에서 불합리함을 경험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 조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조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어 학문의 연속성은 지속되기 어렵게 된다.

조교, 업무 과정의 불합리함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다행히도 우리학교는 대학원장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대학원생 인권 어디까지 왔나’라는 토론회를 열어 대학원생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실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공유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표준적인 업무와 이에 따른 책임, 그리고 조교로서 누릴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명확하게 규정한 표준화된 조교 임용 및 관리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 행정의 시행이라고 생각한다. 경희대

학교에서 조교가 된다는 것은 대학원생에게 영광되고 보람된 일이 되어야 한다. 경희대에서 조교를 하는 것이 힘들고 불행하면 이는 곧 우리 대학의 학문 공동체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학원생 역량 발휘 위해 연구여건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학술 진흥은 이름만 알려진 학자 몇 명을 모셔 오므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교수와 조교의 상호존중에 의한 공동 작업을 귀하게 여기는 대학원의 학풍과 전통 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학원생은 학문 탁월성 구현의 주인공이자 교수의 연구 및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조력자이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대학원생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역할과 책임의 바른 규정과 이에 기반을 둔 생활 및 연구여건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더 늦기 전에 미래 지향적인 대학원 학술 문화 확립을 위한 조교제도 운영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참여마당

황지성
(원자력공학 2012)



우리는 지금 탈-라디오포비아를 해야 할 때

얼마 전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일본여행을 다녀오려는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요지는 이러했다. 이미 도쿄도 오염된 지 오래이며, 음식도 오염됐으니 절대 일본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떠한가? 나는 안심하고 다녀와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6년 전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덮쳤다. 재난에 인재를 겹치면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에서 재앙이 발생했다. 이후 SNS를 통한 수많은 유언비어와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으로 일본 여행을 기피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리는 진단을 위해 X선을 찍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한 거부감은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선 큰 반감을 느낀다. 여기에 방사선에 대해 지나친 공포심을 느끼는 ‘라디오포비아(Radio-phobia)’가 더해진다.

적당한 두려움과 경각심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된다

라디오포비아(Radio-phobia)란 ‘과도한 방사선 공포증’이란 말로, 1903년 솔랜드 박사가 처음 주장했고 체르노빌 사고 후 유럽에서 유행했던 신조어다. 대한민국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라디오포비아에 휩싸여 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과학이 말하는 사실과 다르다. 28개국 전문가 80명이 2년간 조사 후 내린 결론을 담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의 ‘2013 후쿠시마 보고서’는 이주민의 모든 생애 피폭선량 추정치가 약 10밀리시버트(mSv)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피폭하는 자연방사선은 약 3mSv이며, CT 촬영 한 번이 약 10mSv 정도 된다. 핀란드, 이란 람사르, 인도 케랄라, 브라질 가리바리, 미국 덴버 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상 수준의 자연방사선을 받고 있으나 건강에 아무 지장 없이 잘 살고 있다.

음식에 의한 내부피폭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연구 논문들에서 보여준 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걱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성물질에 섭취한 이주민들에 대해 내부 피폭 정도를 조사 해본 결과 평생에 걸쳐 받는 방사선의 양이 1mSv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예도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일본에서 건너온 오염된 고등어를 1년 동안 매일 1kg씩 먹는다고 해도 내부 피폭량은 고작 0.002mSv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 원자력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사님의 강연 중의 내용을 일부 차용한 것이다. 적당한 두려움과 경각심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우리는 방사선 공포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에 사로잡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굳이 후쿠시마에 여행을 가는 기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외의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연구 결과들이 이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학년도 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첩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UNITAR, WFUNA 인턴쉽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10월 10일~2018년 1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접수완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기준 합격자 수시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j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제43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대한민국 미래를 보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2017.11.22(WED) 15:00

강연 | 이만열 교수 (경희대 국제대학)

일시 | 2017.11.22 (수) 오후 3시

장소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내용 | 강연, 도서증정행사, 사인회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KYUNGHEE UNIVERSITY CENTRAL LIBRARY